

윤장현 광주시장 전남도의회서 도마위

주연창 의원, 전남도건설도시국 상대 추경안 심의서 윤 시장에 일침 “무안공항 활성화 명분 여러 행보, 결국 광주군공항 이전 위한 포석”

윤장현 광주시장이 11일 전남도의회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한 의원이 광주군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활성화와 관련해 윤 시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뼈있는 한마디를 하고 나선 것이다.

주연창(여수4·국민의당)의원은 11일 전남도건설도시국을 상대로 한 추경안 심의에서 “무안공항이 부정기노선이 많이 늘었다. 공항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는데 아 이리니하게 윤 시장이 일본 기타큐슈, 중국 광저우에 무안공항 노선 제안을 한 것으로 인다면서 “(윤 시장의 행보가) 광주군공항의 전남 이전 문제와 연관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근 윤 시장이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무안공항에 전세기나 직항을 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주 의원이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군공항의 전남 이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윤 시장이 갑작스럽게 전남지사가 할 법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광주군공항의 전남 이전의 관건은 전남 지역민의 동의일 것인데, 윤 시장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무기”를 통해 들고다니다면하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은 윤 시장에게 일

침을 놓았다. 그는 “윤 시장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명분으로 여러 행보를 보이는데, 광주시가 광주군공항의 전남 이전지역 4곳을 전남도와 사전 협의없이 마음대로 발표했다”고 지적한 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떠어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며 윤 시장의 행보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광주시가) 광주군공항을 이전하면서 전남도와 협의도 없고 실질적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서 “상생도 좋지만 (전남이) 손해보는 건 안된다”며 전남도의 적

절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정선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무안공항 활성화는 광주 전남 상생과제다. (윤 시장의 행보는) 무안공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전남뿐 아니라 광주까지 가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시장은 최근 행보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현 기자



윤장현 광주시장, 시내버스 운전원식당 방문. 윤장현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북구 월출동 첨단 시내버스 차고지를 방문해 운전원들과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 복합관광 활성화 해야”

광주·전남지역 관광산업이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숙박관광여행과 관광객 지출이 저조한 만큼 의료·생태·문화 등 복합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이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 관광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내국인 관광객은 2012년 여수엑스포를 기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돼 2016년에는 1197만명(광주 66만명·전남 1131만명)을 기록했다. 내국인의 광주·전남지역 여행

민족도 중 전남은 가구와 개인여행 모두, 광주는 개인여행 민족도가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은 자연경관, 문화유산, 식당·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숙박관광여행 비중이 제주, 강원, 부산, 경남 등 주요 관광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광주·전남지역의 숙박관광 만족도가 당일관광에 비해 낮은 데 기인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인호 기자

“조선기자재기업 사업다각화 장기적 지원”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는 10일 “전남 주력산업 가운데 하위 조선산업 분야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및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위한 창업 지원이나 교육훈련 등 장기적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시국장 토론회에서 “조선산업 관련 상반기 수주 실적들이 많이 올라서 꽤 다행이지만, 이 성과가 소규모 기자재업체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도에서 건의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

간이 다행히 내년 6월까지 연장된 만큼 창업지원이나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술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도 보다 장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천일염 대책에 대해선 “천일염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원산지 표시제 강화, 수매 확대, 업종 변경, 유통센터 설치, 전기세 감면 등을 해양수산부와 잘 협의해 어려움을 해소토록 노력하라”며 “특히 국내 시장이 좁기 때문에 중국 등 해외 수출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현 기자

동구 “작은도서관에서 역사랑 함께 놀아요”

광주 동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역사야 놀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지산동·학운동·지원2동 작은도서관에서 한국역사문화협회 신성란 강사를 초청해 시대별 문화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역사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고구려 장군총·무용총·강서대묘, 백제 철지도·정립사지석탑·반가사유상, 신라 첨성대·불국사·황룡사, 가야 철갑옷·탑이쇠 등으로 북아트를 만들고 역사 골든벨 퀴즈를 진행한다.

각 도서관마다 동구 거주 초등학생(2~4학년) 15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참가신청은 오는 21일까지 해당 작은도서관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접수하면 된다.

서구, 마인드 케어 이동상담실 호응

광주 서구가 등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운영하는 마인드 케어 이동상담실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동 상담실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해 준다.

지난 달 부터 진행된 이동 상담실은 복지허브화 및 서구 생명지구대 운영 등 중심으로 9개동을 순회하며 오는 14일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8월까지 매주 월 금 09:30부터 11:30까지 서구보건소 2층에서 산안·산후 우울 조기 발견을 위한 우울검진 및 상담이 진행 된다.

남구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직접 챙긴다”

광주 남구는 주민들의 복지 민원과 생활 민원,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통장이 거주하는 주택과 아파트 416곳에 주민 ‘소리함’을 설치·운영한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관내에 설치되는 주민 ‘소리함’의 총 개수는 416곳이다.

남구는 우선 올 한해에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통장의 집 227곳에 주민 ‘소리함’을 설치한 뒤 내년에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통장의 집 라인 입주 또는 경비실 앞에 주민 ‘소리함’ 189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관내에 설치되는 주민 ‘소리함’은 빨간색 지붕과 흰색 벽면을 조합한 가로 22cm, 세로 30cm 크기의 주택 모양으로 제작됐다.

북구, 새 정부 일자리정책 선제적 대응 총력

광주 북구가 새 정부의 ‘일자리 100일 플랜’에 맞춰 숨은 일자리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13일 구청 2층상황실에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 북구형 일자리발굴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한 새 정부정책에 구청 운영방향에 일자리의 연계성을 강화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부구청장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민선6기 일자리 추진 현황과 새정부 대응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부서별 상반기 일자리사업 실적 보고, 신규 일자리 발굴사업 협력방안 토의 등 순서로 진행된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금호타이어 매각 1인 시위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11일 1인 시위에 나섰다. 민 구청장은 ▲고용안정 유지 ▲광주공장 물량감소 방지 ▲광주공장 규모 유지 3대 사항을 정부와 산업은행에 요구했다.

민 구청장은 무진대로 산업은행 광주지점 앞에서 이날 아침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광산구는 고용보장파 설비투자를 담보하지 않은 금호타이어 매각을 반대한다’와 ‘광산구 요구 3대 사항을 적어 넣었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완도·구례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한 정 승 인 공 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17년 689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이호성(83009-164727)
최 후 주 소 : 광주광역시 수완동 50번길 42-12
102동(수완동)
등록기준지 : 전남 해남군 현산면 백곡리 25

위 망이호성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 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7년 7월 12일

공고인: 이훈봉, 윤기순
주 소: 전남 해남군 산이머 외송길 67
한정승인수리인 : 2017년 7월 3일
공고기간 : 2017. 7. 12~ 2017. 9. 13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건설면허신청
- 기장대리
- 양도상속증여
- 법인설립
- 기업진단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대월동 948 산업용재류
동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63-1060 FAX : 062-66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